

5. 지역자원 유형 및 지역자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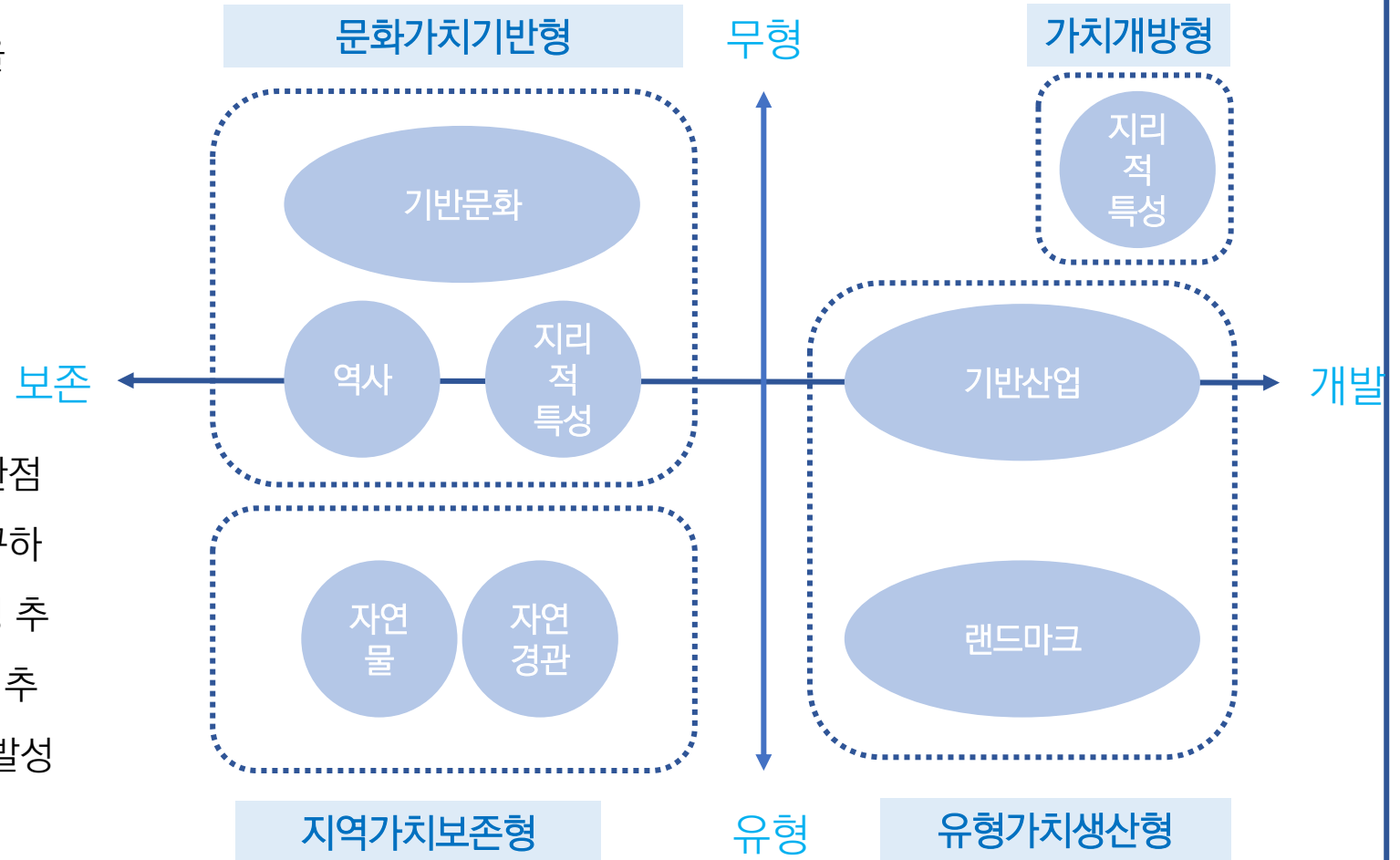
장안대학교 외식비즈니스과
이소미 교수

목차

1. 자원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지역자원 유형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권

1. 자원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새로운 지역자원 유형

- 최근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기존 지역자원,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의 가치와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 활발
- 지역자원의 형태(유형,무형)와 지역자원 이용관점 (보존, 개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존성 추구하는 유형자원은 “자연가치 보존형 자원“, 보존성 추구 무형자원은 “문화가치기반형 자원“, 개발성 추구하는 유형자원은 “유형가치 생산자원“, , 개발성 추구하는 무형자원은 “가치개방형 ”으로 분류



1. 자원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새로운 지역자원 유형

- 지역(로컬)브랜딩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요소와 차별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요소를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새롭게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개발하는 작업
- 지역브랜딩의 효과
 - 지역행정관리자 관점: 의사소통의 원활한 수행, 지역경제 활성화 돕는 요인
 - 지역주민 관점: 공동체 결속 강화, 목표의식 공유
 - 지역방문자 관점: 지역가치 소비와 체험

1. 자원유형 분류 기준에 따른 새로운 지역자원 유형

- 지역브랜드는 브랜드 요소에 따라 자연자원형, 문화자원형, 상품자원형, 서비스 자원형으로 분류

유형	내용	사례
자연자원형	특정지역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기반으로 새로운 지역 콘텐츠와 브랜드 개발	한국의 알프스 평창, 자연과 서비스의 보물섬, 남한 살고 싶은 중원의 도시 충주
문화자원형	지역고유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	전통으로 글로벌화 된 문화도시 안동
상품자원형	지역농산물이나 상품 등에 높은 기술이나 특별한 품질, 오랜 전통이 합쳐져 형성된 브랜드	임금님께 진상하던 임금님 표 이천 쌀 대한민국 대표 한우 브랜드 황성 한우 명품 장류의 시작, 순창
서비스자원형	사물, 현상에 창의적인생각을 접목하여 사람이 만든 브랜드	개흙을 황금으로 바꾼 보령 머드축제, 창의와 열정으로 일군 함평의 나비축제

< 지역자원을 재창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브랜드요소에 따른 지역브랜드 유형, COHIVE, 2023>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1) 강원도 자연환경

- 한반도 중앙부 동쪽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로 크게 구분
- 위도상으로는 북위 37° 02'에서 38° 37'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 동경 127° 05'에서 129° 22'에 걸쳐 있으며 북위 38도선은
- 강원도의 거의 중앙부를 통과.

- 동서의 길이는 약 150km, 남북은 약 243km에 달하며, 동쪽은 약 212km에 걸쳐 해안선을 이루면서
서쪽: 황해도 신계·김천군, 경기도 연천·포천·가평·양평·여주 등 여러 군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 충청북도 충주·제천시, 단양군 및 경상북도의 영주시, 봉화·울진군과
북쪽: 함경남도 안변군·문천군 및 황해도의 곡산군과 접하여 5도 3시 13군과 경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1) 강원도 자연환경



<대관령 하늘목장-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속초시

설악산 자생식물원



속초시

설악산



속초시

영랑호



춘천시

청초호



속초시

속초등대전망대



속초시

청대산



홍천군

홍천강오토캠핑장



홍천군

팔봉산관광지



홍천군

척야산문화수목원



홍천군

은행나무숲



홍천군

용소계곡



홍천군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1) 강원도 자연환경

- 평창 – 대관령 목장
- 인제- 자작나무숲
- 횡성 – 한우
- 양양 – 송이
- 강릉 – 두부(해양심층수)
커피
- 강원도 오대쌀
- 봉평 – 메밀 (이효석 메밀꽃 필무렵)

| 강원도 랜드마크에는 무엇이 있을까?

- ◆ 강원도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아름다운 산과 해변, 역사적인 건축물, 지역성을 담은 문화시설 등 다양한 랜드마크가 존재)

- 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자연 : 설악산·오대산 등 아름다운 산과 계곡, 동해안 바다
- 동계스포츠와 평창동계올림픽 : 지역의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행사와 축제로도 형성. 2018년 개최된 동계올림픽으로 각인된 지역 이미지로 인해 알펜시아 등 올림픽이 치러진 경기장을 랜드마크로 인식
- 동해안의 해변 : 양양 서피비피 등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해변과 동해 바다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안목 해변 커피거리를 랜드마크로 인식
- 역사적 명소 : 강릉 오죽헌·양양 낙산사·고성 통일전망대 등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명소를 랜드마크로 인식

<강원도의 랜드마크>

◦ 강원네이처로드 1코스

-호수 드라이브길-

호수 드라이브길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이 있다. 그 중 춘천 실레마을은 1930년대 평범한 농민들의 삶에 소설로 쓴 김유정 작가의 고향이면서 작품 배경지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길을 걸으며 마을의 옛 이야기, 김유정 작가의 문학과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1) 강원도 자연환경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상품

◦ 강원네이처로드 1코스

- 호수 드라이브길 -

호수 드라이브길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이 있다. 그 중 춘천 실례마을은 1930년대 평범한 농민들의 삶을 소설로 쓴 김유정 작가의 고향이면서 작품 배경지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길을 걸으며 마을의 옛 이야기, 김유정 작가의 문학과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강원 네이처로드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2) 강원도의 음식자원

	특징	대표메뉴
강원도	- 산악이나 고원지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자, 강냉이, 메밀, 도토리 등을 이용해 만든 음식과 산나물 음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감자로 만든 음식이 다양하게 발전해 감자 수제비나 옥수수 범벅을 식사대용으로 만들기도 함 - 영동해안지방은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 육류나 젓갈을 적게 쓰고 멸치나 조개를 넣어 음식의 맛을 내기 때문에 맛이 극히 소박하고 담백. - 특히 생선회를 비롯한 신선한 생선과 황태, 북어, 편포, 건오징어 등 말린 생선, 미역 등 해조류를 말린 건미역, 그리고 명란젓, 창란젓 등 젓갈류가 발달 《천일록》에 의하면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벼보다는 옥수수, 메밀, 조, 차조 등 잡곡의 재배에 주력하였다. 주식 역시 옥수수밥, 조밥, 찰수수밥 등 잡곡밥이 기본을 이룸.[네이버 지식백과] 강원도 (그리움의 맛 북한전통음식, 2016. 12. 29.)	감자밥, 황태구이, 오징어순대, 더덕생채, 더덕구이, 감자송편, 메밀묵, 메밀막국수 등 그림 6-1 ▶ 식재료의 맛과 테루아 출처: 벤자민 주아노(2013)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2) 강원도의 음식자원

금강жат죽



금강жат죽

쌀에 잣을 섞어 쑨는 죽이 금강산을 끼고 있는 금강, 고성 지방에서 특히 유명해서 금강жат죽이라고 불렀다. 《지봉유설》에는 잣(해송자)은 내금강 회양의 것이 명물이라 하였고, 울진의 해송자도 특산물이라고 적혀있다.

도토리묵



도토리묵

강원도의 산에서 흔하게 나오는 도토리로는 묵을 만들어 먹었는데, 산간지대에서는 도토리묵을 동치미국물과 함께 별미로 즐겼다. 《임원십육지》에는 '도토리를 가루내어 청포처럼 묵을 만드는데 색은 자줏빛이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강원도 지방의 대표 전통음식 (naver.com)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2) 강원도의 음식자원



산채요리

양양 속초 정선 인제 삼척

강원도 우색약수 지역에 있는 산채요리 전문점들은 사시사철 설악산을 우리내리며 청마다

많이 나는 나물들을 손질해 데친 뒤 햇볕에 잘 말려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갈무리해 놓습니다. 나물의 특성에 따라 집에서 직접 담근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소금 등으로 간하고, 갓 찐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파, 마늘 등 최소한의 양념으로 무쳐낸 나물 본연의 맛을 살려 요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밥 한 공기에 예닐곱 종류의 나물을 넣고 고추장 한 수저를 푼 떡 넣어 비비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진수성찬이 됩니다. (양양관광 발책)

#강원도나물 #신선한 #건강식 #나물정식 #아이도좋아하는

설악산 인근 산채요리

평창 메밀

평창의 지역색을 살린 특색 있는 메뉴도 눈에 띈다. 바로 '메밀 라비올리'다. 「메밀꽃 필무렵」으로 유명한 평창 봉평면의 스토리를 담고자, 메밀을 첨가해서 라비올리로 만들었다. 한 입 베어 물면 구수한 메밀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리코타 치즈와 새우의 식감이 말강하게 씹힌다. 이 밖에 식전빵으로 제공되는 치아바타에도 메밀을 첨가해 구수한 풍미를 더했다. 정석주 캔싱턴호텔 평창 총주방장은 "로컬의 맛을 담은 이곳만의 미뉴를 개발하기 위해 근교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대파나 찰옥수수, 버섯, 감자 등도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지방의 대표 전통음식 (naver.com)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 강원관광 사이트- 강릉의 두부 소개



두부전골

강릉

인제

강릉에서는 이 지역의 유명한 초당두부와 찹쌀을 기본으로 배추김치, 양념장 등을 넣어 끓인 얼큰하고 시원한 전골이 유명합니다. 두부전골은 전국민이 좋아하는 영양식 재료이기에 두부를 활용한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 두부전골은 국물을 넣어 얼큰하게 먹는 음식으로 가정에서도 많이 즐겨먹습니다. 전골은 가운데에 큰냄비를 두고 끓여 먹는 음식으로 익는대로 각자 꺼내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름에 지진 두부를 넣기도 하고 생두부를 넣기도 하며, 다양한 채소와 고기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강릉의 초당두부전골은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두부와 배추김치, 대파, 표고버섯을 넣고 들깨가루를 넣어 구수함을 더했습니다.

#얼큰한 #건강식 #초당두부 #두부전골 #각종채소

강원도 지방의 대표 전통음식 (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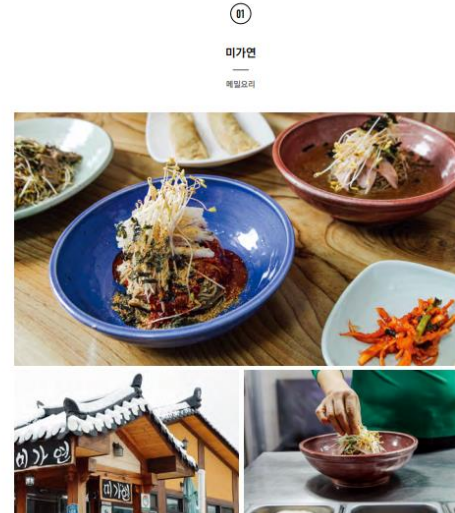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 한식의 맛 잡지- 평창의 자원을 소개



THE TASTE OF PYEONGCHANG 평창의 맛

강원도는 전체의 80퍼센트가 산지로 이루어져 농작을 위한 토지가 부족한 것 사실이다. 하지만 평창을 여행하는 여행지라면 먹거리 걱정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사육한 대령 한우가 첫 번째로, 겨우내 알았다 녹기를 반복해 부드럽고 은은해진 황태가 두 번째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실 (메밀로 된 우편)의 주 무대인 봉평에서는 알맞은 풍우는 다양한 메밀요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송어나 감자 같은 식재료 역시 평창을 최고로 친다. 직접 경험해본 바 한식의 더 깊고하고 깊은 맛을 연구하는 실험정신은 평창을 따라올 곳이 없어 보인다.



미가연

메밀요리

봉평에 갔으면 미가연에 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메밀음식을 내놓는 곳이다. 대표메뉴인 이대멸메밀국수를 비롯해 메밀밥, 육회비빔밥, 메밀전병 등 메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찾아와 부러워할 만큼 고집스럽게 메밀개발에 힘쓴다. 특히 메밀음식문화연구소에 직접 개발한 이대멸메밀국수는 문정과 메실메기를 베이스로 한 육수와 백 퍼센트 메밀 면을 사용하여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챙겼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된다면 주인에게 직접 메뉴추천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가평로 108 T. 033 335 8805 O. 09-30-20-00 연휴무휴 M. migayoon.co.kr P. 평창 주치장 이용



01

PYEONGCHANG

메밀과 평창

“메밀은 생장이 왕치고 생하여, 빛은 달고 독성이 없어 내장을 든든하게 한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다. 메밀의 주요 성분 중 무당은 혈관벽을 탄탄하게 해 출혈을 방지하고 담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건강을 좋게 한다. 체질적으로 열과 양이 많은 사람에게 주로 좋다. 주로 겨우를 내어 천이나 국수 등으로 섭취하며,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효능을 가진 메밀이지만, 안으로 생각되고 먹는 것보다는 그 교육의 맛을 즐기길 추천한다. 세로로 잘라낸 육수에 육 달기에는 메밀국수, 허식한 메밀 밥을 함께 바꾸려는 세미메밀, 한 입 크기로 잘라 먹는 메밀편편 등은 소화기 잘 되어, 아무런 부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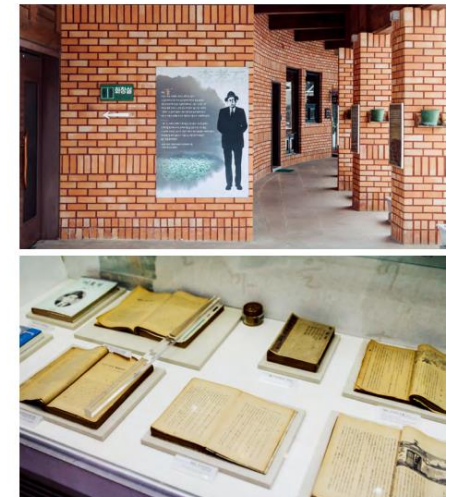
THE HERITAGE OF PYEONGCHANG 평창의 맛

평창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기후를 가지고 있어 휴양과 활동 등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이다. 연중 기온이 낮아 여름철 피서지로 적당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거나 설산을 오르는 사람들로 늘 만원이다. 개국 개포팅과 개포팅이딩, 목장 투어에 토끼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이다. 그런가 하면 작은 마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 소중한 즐거움을 찾기도 제각각이다. 특히 가산 이효석의 소설세계를 구현한 봉평 마을은 교육적으로도 꼭 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더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평창시는 길을 넓히는 등 보다 나은 세간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여행을 위해서는 교통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택시의 경우 비교적 이용이 편리하지만 버스는 시간이 드물고 노선마다 벗길려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하다.

봉평문화마을
주소

A.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대강리길 14
T. 033 330 2742
H. pye-gc.net

1930년대 전통마을의 삶과 여행을 그린 (메밀로 된 우편)은 강원도 봉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효석의 단편소설이다. 1990년 이효석문화마을로 지정된 봉평면 봉평리 마을은 매년 가을, 들만에 피어난 하얀 메밀꽃이 장관을 이룬다. 허생원이 동이를 얻고 건너편 송정천, 물레방앗간, 송추강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를 비롯해, 이효석의 작품세계를 전시한 이효석문화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이효석문화마을은 문학 강자와 민속놀이 체험, 장터 재현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열려나 삼고삼고.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 강릉 - 초당 순두부



닭강정, 물회, 장칼국수, 찹쌀떡



| 강릉 초당동 순두부 브랜드 상권

- 강릉 초당동은 강릉에서 즐겨먹는 순두부를 콘텐츠로 활용하여 순두부젤라또, 초당순두부, 교동짬뽕 등 로컬 브랜드 품목을 배출한 로컬 브랜드 상권
 - 상권을 견인한 앵커스토어로 초당동의 텃마루(커피), 초당소나무집(순두부 젤라또), 동화가든(짬뽕순두부) 등이 있음
- 초당두부마을은 19개 순두부 전문점이 모여 있는 동네로 개별 매장에서 조선 시대 옛 방식 그대로 직접 만든 두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강릉 초당동의 로컬 브랜드는 순두부 콘텐츠를 제조업으로 생산하여 전국 편의점과 마트로 유통
 - 강릉의 마을기업 강릉초당두부는 브랜드 강릉초당두부를 약 5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마트, 편의점에 제공하며 갤러리아, 롯데백화점, 이마트, 생협 등으로 전국으로 유통
 - 또한, 아이스크림 유통업체 제스크토와 협업해 강릉초당순두부아이스크림을 CU, GS25 등 편의점으로 출시
- 마을기업 강릉초당두부(주)는 초당두부마을을 운영하고 50여명을 고용하며 강릉 초당동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에 기여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 강릉(안목해변) - 커피



I 강릉 커피 브랜드 상권

- 강릉은 한국 커피산업의 메카로, 한국에서 커피를 지역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도시
 - 강릉시에 500개가 넘는 커피전문점은 커피소매점 외에도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 커피를 공급하는 로스팅 비즈니스를 운영
 - 테라로사, 박이추보헤미안커피, 커피커퍼, 서울우유 강릉커피 등 전국 커피 브랜드를 배출
- 강릉 커피 브랜드 상권은 강릉의 커피 문화를 커피산업으로 개척한 기업가, 로컬 브랜드 생산과 유통 플랫폼, 로컬 브랜드 생태계로 진화
- 강릉의 커피산업을 개척한 사람은 2000년대 초반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 보헤미안의 박이추 대표와 테라로사의 김용덕 사장
 - 테라로사는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한 강릉의 대표 커피 브랜드
 - 지역 상권을 견인한 앵커스토어로 명주동의 오월과 봉봉방앗간, 흥제동의 버드나무브루어리, 강문해변의 카페 폴앤메리 등이 있음
- 강릉은 커피산업 인력의 양성지로 연 5,000명의 바리스타를 배출
 - 보헤미안과 테라로사 등 강릉 커피산업을 개척한 가게들은 공통적으로 커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강릉 지역의 대학들도 관련 과정을 개설
- 강릉 커피 브랜드와 강릉 커피 콘텐츠는 지역의 오프라인 공간과 동네 또는 강릉커피 라이브커머스 등 생산과 유통 플랫폼을 통해 제공
 - 강릉 커피 생산지: 커피공장, 커피재배농장, 커피가공클러스터 등(2014년 계획)³⁾
 - 오프라인 공간: 테라로사타운, 커피커퍼 커피박물관, 안목커피거리, 명주동, 강릉시 주관 강릉커피축제 등
- 강릉 커피 브랜드 생태계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상권 중심의 커피산업도시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3) 강원도의 축제 : 자연환경, 음식, 인물 관련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축제



정선 동강할미꽃축제

기간 | 2024-03-22 ~ 2024-03-24

장소 | 동강생태체험전시장, 동강할미꽃 거리 일원



영월 단종문화제

기간 | 2024-04-26 ~ 2024-0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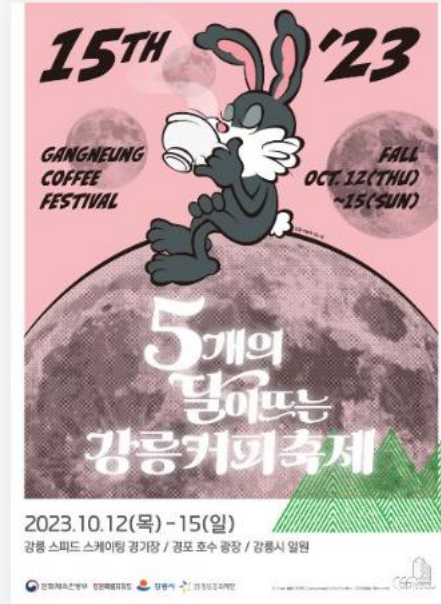
장소 | 세계유산 장릉 외 2개소



횡성 한우축제

기간 | 2023-10-06 ~ 2023-10-10

장소 | 횡성 종합운동장



강릉 커피축제

기간 | 2023-10-12 ~ 2023-10-15

장소 |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및 경포호수...



안흥찐빵축제

기간 | 2023-10-13 ~ 2023-10-15

장소 | 안흥면 주천강로 1868 (안흥찐빵모락모락...)

전국축제 |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visitkorea.or.kr)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4) 강원도의 예술 : 미술관, 박물관



원주 - 뮤지엄 SAN

뮤지엄 산 Museum SAN (한솔문화재단)



강릉 - 아르떼 뮤지엄

ARTE MUSEUM VALLEY GANGNEUNG

2. 지역별 로컬 콘텐츠와 음식 자원 분석 - 강원도

4) 강원도의 예술 : 미술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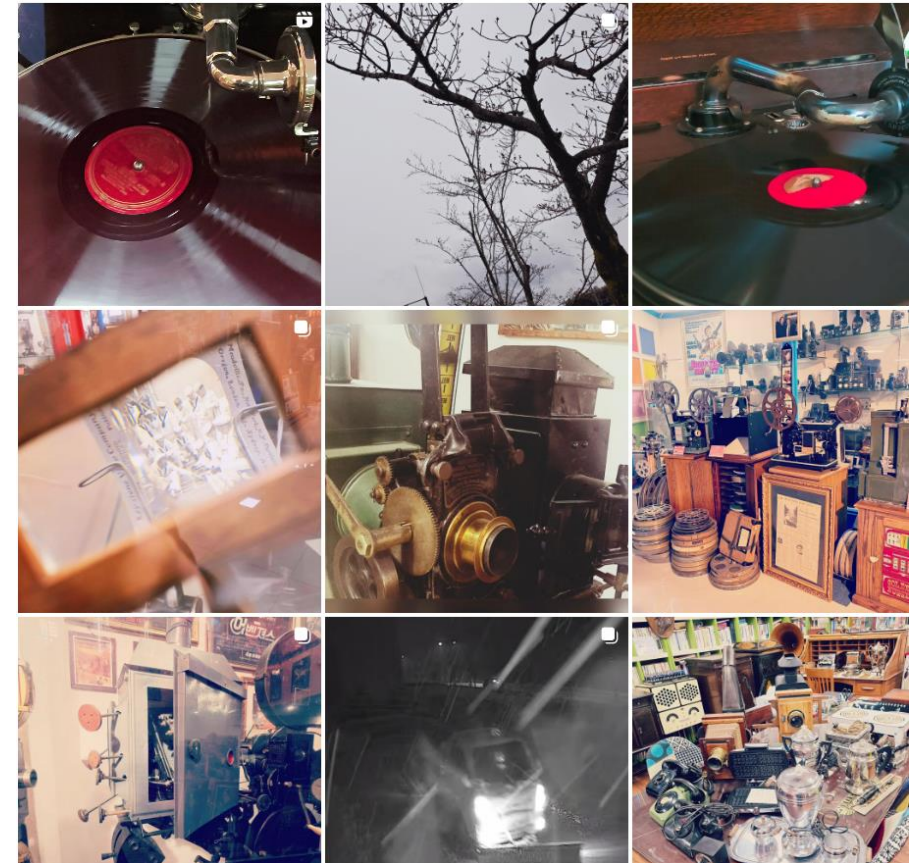
A 메밀꽃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향동리 707-2

B 호석문화마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갈리 765-5

C 이효석 문학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호석문화길 73-25 이효석문학관

D 평창 호석문화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이효석길 157

평창- 이효석 문화마을, 봉평 메밀꽃 축제



강릉 -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강원도 권역에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경험해 본
지역의 특별한 지역음식자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강원관광 (gangwon.to)

강원 네이처로드 (natureroad.gangwon.kr)

김영수 외(2018),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 서울 ; 클라우드 나인

뮤지엄 산 Museum SAN (한솔문화재단)

ARTE MUSEUM VALLEY GANGNEUNG

한국관광공사, 전국축제 |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visitkorea.or.kr)

한식재단 (2016), 맛있는 한식여행, (재) 한식재단 한식홍보팀